

# 미가 이야기

\* 10/22(금) 미가 ❶ 1-7장

미가 1-7장		
죄와 심판 1-3장	회복 약속 4-5장	회개 촉구 6-7장
<p>▶ 미가 소개 1:1</p> <p>▶ 사마리아/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1:2-16</p> <p>[우상 숭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.</li> </ul> <p>▶ 사회/종교 지도자들의 죄 2장</p> <p>▶ 지도자들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 3장</p>	<p>▶ 예루살렘 최후의 승리 4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여호와와 산</li> <li>· 여호와와 계획(남은 백성)</li> </ul> <p>▶ 메시아 탄생, 구원의 약속 5장</p> <p>[메시아 예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(5:2)</li> </ul>	<p>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6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의, 사랑, 동행(6:8)</li> </ul> <p>▶ 미가의 회개, 회복의 말씀 7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(7:18)</li> </ul>

## Before 줄치며 읽기

하나님의  
<뜻>을 묵상하며  
통독해 보십시오.

## After 묵상하기

나에게는  
나를 위한 우상이  
있습니까?

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.  
이사야, 그리고 <미가>입니다.

요담, 아하스,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.  
사마리아(북이스라엘)와 예루살렘(남유다)의  
미래를 동시에 예언합니다(1:1).

죄악을 도려내기 위해, '누가 여호와와 같은가'  
미가로 하여금,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하십니다.

### • 우상불가 : 하나님 vs. ?

죄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.  
우선 큰 죄는 '우상 숭배'입니다.

하나님을 반역한 야곱의 허물,  
정도(正道)를 벗어난 '이스라엘의 죄'입니다.  
예루살렘 성전이 산당과 같아집니다.  
정도(程度)가 지나친 '유다의 죄'입니다(1:5).

라기스는 \*시온의 '죄의 근본'입니다(1:13).  
그들의 가장 진보된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.

하나님보다 '더' 신뢰하고 따르는  
모든 것이 '다' 우상 숭배입니다.

\*성전이 있었던 북편 언덕,  
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.

### 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  
두란노 HOW주석  
통성경 길라잡이  
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

• **대항불가 : 하나님의 적, 강자 vs. 약자의 하나님**

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.

허나,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. 폭력과 학대가 팽배했습니다(3:1-3).

방어할 힘이 없는 자를 ‘내 백성’이라 칭하십니다(3:2). <약자의 하나님>이십니다.

그들은 ‘하나님의 적’입니다.

시온을 피로,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습니다(3:10).

뒷주머니에 무엇을 채워 주느냐에 따라, 가증스런 입을 엽니다. 망언을 일삼습니다(3:11).

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것입니다.

적(敵)들로 인해, 시온, 예루살렘, 성전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(3:12).

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십시오. ‘죄와 벌’의 무게가 중합니다.

• **오해불가 : 하나님 vs. 내가 만든 신**

하나님께서 ‘내 백성’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. 속량하셨습니다.

‘내 백성’을 위해, 모세를 세우셨습니다.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(6:4-5).

<정의와 공의>, <사랑과 징계>, <은혜>의 하나님이십니다.

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

내 판단이 만든 신을, 하나님이라 오해하게 됩니다(6:3).

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만 몰두합니다.

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드러지지 않았습시다(6:6-8).

오해는 경로를 이탈하게 합니다. 오므리 왕조의 율례, 아합 집의 전통을 따릅니다(6:16).

하나님이 ‘진짜’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. 나보다 하나님이 중합니다.

• **비교불가 : 앎 vs. 삶**

앎과 삶의 부조화가 무거운 형벌을 초래합니다. 삶이 없는 앎은 ‘눈 가리고 아웅’입니다.

무너진 균형, 떨어진 앎과 삶의 괴리를 되찾을 기회를 언제든 열어두십니다.

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.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(7:19).

죄를 인정하고, 사과하며, 돌이키는 회개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합니다.

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,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. 하나님의 위로입니다(5:2, 마 2:4-6).

“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(7:18).”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.